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유신잔당도 아니고 양김씨의 하수 정당도 아닌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2005년 오늘, 나는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쳤던 소위 긴급조치 세대가 정치적 집권에 성공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긴급조치 세대가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국가관을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까지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8년 9월 신체검사를 받았다. 유인물을 뿌리고 잡혀가기 직전이었다. 구속 당시에 이미 영장이 나와 있었는데 79년 4월에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부친이 대한항공에 말직으로 근무하셔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79년 4월에 군대에 갔을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한항공에 입사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연적인 요소로 운명이 바뀐 셈이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는 운명과도 같은 우연이었다.

## 내가 긴조세대라는 것을 일깨우는 조그만 일들



여균동 서울대 철학과 77(재입학 79)학번. 창작과비평사 편집부, 극단연우·광대배 활동, 민요연구회·노동자문화운동연합 활동, 사회사건연구소·사진통신 활동, 영화감독(현)

### 인터뷰

지금 나는 '비단구두' 라는 작품을 편집하고 있다. 매우 적은 돈으로 영화를 만드느라 근심을 이고 산다. 내용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가짜 고향방문기.

그리고 모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한다. "가족 가운데 실랑민이 있느냐, 왜 이런 내용의 영화를 근심을 싸안으면서 하느냐, 혹시 당신이 당사자냐?" 그런 질문일 게다. "한 다리 건너면 이산 가족의 아픔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슬며시 질문을 피한다. 나는 속으로 이것을 '당사자주의' 라고 칭한다. 마음 한편이 무겁다. 이미 마감을 넘긴 원고생각 때문이다. 긴급조치9호 세대들이 기록을 남긴단다. 당사자인 나한테도 글을 써달라고 해서 진성으로 "예, 예" 하고 전화를 끊은 이후, 계속 머리가 무겁다. 심지어 편집실 건너편 중국집 주인 아줌마가 신문에서 내 얼굴을 봤단다. 무슨 말인지 몰라 비단구두 영화기사인가보다 하고 "예, 예" 하며 지나치려니 신문을 들고 왔다. 내 사진이다. 또 긴급조치9호다. 인터뷰 기자가 말꼬리를 잡는다.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젠 취조하듯이 달려든다. 장황하게 설명한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어도 이산가족, 분단, 실랑민, 치매 등등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

도 슬며시 -간에는 날이 서게- 끼워 넣는다. 그러나 기자는 관심이 없다. “아, 역시 긴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군요” 기분이 엉킨다. 하루 종일 그놈의 ‘당사자주의’와 ‘긴조세대’라는 말과 씨름을 한다. “언젠가는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죠.” 나는 멧쩍게 웃는다.

### 글쓰기

사랑에 지치면 글을 쓴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과연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가 글쓰기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편지쓰기와는 다르다. 어쩌면 내면의 내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먼 시간 여행일 수도 있다. 할 이야기가 쌓여서 마구 쏟아내는 수도 있겠고 견디기 위해서 글에 매달릴 수도 있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숙제하듯이 글을 쓴다. 긴급조치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다. 어쩌면 20대를 송두리째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생각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암담하다. 사진도 편지도 기록도 없다. 그 당시는 모든 게 증거물이 되고 조직표가 되고 실형이 되기에 모두 없애버렸다. 전 국민을 정치범화한 긴급조치9호는 전 국민을 민주화시킨 장본인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번도 곱씹어보거나 뒤돌아본 적이 없다. 일종의 괘호다. 어쩌다 되돌아볼 일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렇다고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부채가 있다. 제발 품잡는다고 오해가 없기 바란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거듭 스친다. 단편적인 망상들이 들끓는다. 결국 밤이 이속해지고 글쓰기를 포기한다. 아직 덜 사랑한 거다. 혹은 사랑하는 중이다.

### 메일

메일을 본다. 긴조와 집시라는 제목의 메일이다. 한번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던 메일을 보면 뭔가 써야겠다는 녀이라도 생길까봐 읽는다. 연락처에 김경택이라는 선배의 전화번호가 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도무지 구속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시킨 사건의 주범이다. 거의 이십년만의 전화목소리이리라. 그저 답답한 일상 대화만 지속된다. “출판사를 한

다.” “무슨 출판사?” “여러 출판사...” 더이상 묻지 않는다. ‘여러’라는 말 속에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있어 보인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감방살이를 했기 때문에 소위 감방동료들이 거의 74학번, 75학번들이다. 그 가운데 나의 머릿속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는 선배의 얼굴이 떠오른다. “D형 뭐해?” “글썸다, 본지 오래되었는걸...”

그의 이름을 되뇌여본다. 나는 그에게 빛을 지고 산다. 마음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된다. 우린 감옥 벽을 끼고 서서 시를 썼다. 간혹 서로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태양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호남의 전형적인 넓은 미륵얼굴이다. 그는 가끔 전화를 한다. “여기 광주여.” “여기 지리산이여.” “여기 서울이여.” 병원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나왔다고 했다. 한번은 영화사에 대낮에 찾아왔다. 벌써 취했다. 봄날, 미칠 것 같은 바람이 분다. 소위 가든이라는 마당에 앉아 고기를 먹었다. 주먹을 쥐면서 노래를 부른다. 단지 ‘그때가 좋았어’라는 투정은 아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침 손님이 없었다. 손님이 있더라도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낮에 택시에 실려 집으로 갔다. 그때 평촌이었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다. 힘들 때 그의 태양을 떠올린다.

메일은 열려있고 창문 너머 벚꽃만 바라본다. 바람에 곧 질 터이지만 꽃은 꽃이다.

### 핀잔

하도 끔끔대니까 아내가 측은하게 바라본다. 아내 역시 준 긴조세대이다. 본인은 극구 포고령세대라고 우긴다. 다른가 보다.

“모여서 뭐 하려는 거야?” “몰라.” 계산을 해준다. 75년 5월부터 79년 10월까지 감옥을 살거나 운동을 한 세대가 긴조세대란다. 그 4년 사이 난 77년에 감옥 가서 79년에 나왔다. 그러니 긴조세대이긴 하다. “정치하려는 거야?” “지금 정치들 많이 하고 있잖아.” 하면서 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데 뒤가 썩인다. 모이면 뭘 하려한다. 그게 모임의 본능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안모이면, 뭘 안하나? 4년이지만 30년이 흘렀다. 계산은 그게 다다. 사실 긴조세대는 광범위해 보이기도 하지만 소수다. 대학도 지금의 전대협스럽지 않았다. 인맥도 한정되었다. 언론지면에도 공개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사건들도 많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철저히 은폐되었고 그 기억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었다. 그러니 그 시기

를 산 이들의 경험과 의식을 평가하고 일반화해서, 심지어 세력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그 세대의 나이들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른다.

“하고 있는 일이나 잘 하라고 해. 민폐 끼치지 말고.” “너무 그럴 거 없잖아. 한번도 객관적으로 언급된 적도 없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도 공감을 하지만 참 아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월드컵, 인터넷, 노사모, 붉은악마… 그러나 긴조세대… 아직 울림이 없다.

## 꿈

여전히 잡혀가는 꿈을 꾸다. 참 안 변한다. ‘레옹’이라는 영화를 거의 다 봤을 것이다. 꼬마여자 연기자 출연조건이 영화가 끝난 후 몇 개월간의 정신치료였단다. 다시 학교생활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데 필요한 조치다. 긴조세대가 정신치료를 받아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에 합당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치료가 아닌 평가라고 생각한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뜻은 아니다. 정당한 의미부여는 개인적인 몸부림 혹은 실타래를 푸는 박카스다.

30년! 참 긴 세월인 듯도 하지만 역사와 현실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리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긴급조치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이다. 또 해방 이후, 아니 일제식민기의 처세자들이 현재의 권력에까지 온존해 있는 상황에서 긴조세대는 아직 쫓내기다. 또 긴급조치와 박정희는 한몸이다. 박정희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과 한몸이다. 여전히 박정희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정치권력의 주변에서부터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잔존한다. 때론 지금도 대단한 위세를 떨치기도 한다. 그러니 긴조세대는 여전히 저항중이다. 그리하여 긴조세대의 악몽은 계속된다. 그 망령이 살아있는 한 그러할 것이다. 아직 우리들은 흑백꿈을 꾸고 있다.

## 어처구니

아이가 뻔히 바라본다. 인터넷에서 긴급조치9호의 내용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지금 학교 사회시간 수업내용이 민주화과정이란다. 참 많이 변했다 싶기도 하다. 아이는 긴급조치9호의 조항들을 읽어본 후 나를 바라본다.

“이게 뭐야? 진짜야?” 천연색 꿈을 꾸는 아이는 ‘도무지 채색불가능 모드’로 바라본다.

나도 다시 읽어보니 어처구니 없기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말이 나온 김에 백지유인물사건을 말해준다. “하루는 학교를 들어가는데 교문 앞에서 난리가 난거야. 어떤 학생이 사복형사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야. 모두들 어찌지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이 나눠준 것은 그냥 백지였데. 그 학생은 학교에서 찢리고 감옥에 갔어.”

아이가 여전히 바라본다. 괜히 말했다 싶다. 높은 내가 말하면 전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영화감독이어서 그런가보다. 괜히 발이 저려 선제공격을 한다. “진짜야! 진짜 있던 일이지?”

“아빠, 나 바빠.” 하곤 자기방으로 참고서를 들고 사라진다.

아, 남겨진 이 어처구니를 어찌란 말인가.

## 또 다른 인터뷰

괜히 했다 싶었다. KBS에서 긴조9호 철폐 30주년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피하질 못했다. 사실 편집실에서 살다시피해서 다른 생각을 해 볼 여유가 없었다. 그들이 편집실까지 찾아왔다. 26동 사건, 도서관 점거사건 등등 꼬치꼬치 캐묻는다. 기억이란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데모가 벌어졌을 때 그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기보다는 인상적인 그림-때론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만이 남겨질 때가 있다. 특히 오랜시간 동안 기억의 창고문을 열어보지 않은 바에야 무엇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 나의 입에서는 그럴듯한 말들만 쏟아져 나온다. 미치겠다. 전혀 소상한 기억이 없다. 말이 말을 속인다. 어느덧 사탕발림 내 입은 긴조시대를 정리하고 있다.

“시를 쓰던(살던) 시대라고 생각해요.” 나, 감옥 간다. 이 얼마나 멋진 시인가. 행동인가. 결단인가. 별이 발길을 비추어주던 시절이다. 그 암흑속에서도 사람들이 있었다.

인터뷰는 엉망이었지만, 미필적 고의로 나는 이제 생각할 빌미를 마련한 셈이다. 그 기쁨도 잠시, 지금 완성 직전의 영화 ‘비단구두’의 제작비 2억을 어디선가 훔쳐와야 한다. 다시 우울해진다.

## 영화제목

직업병이다. 뭐든지 영화로 직결된다. 영화를 시작할 때 때론 그림이 앞서기도 하고 줄거리가 앞서기도 하고 제목이 앞서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목이다. 만일 내가 그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하다가 제목이 떠오른다. 웃지 말길 바란다. 좀 길다.

‘잃어버린 쓰레빠 한짝을 찾아서 영등포로 가자.’

내가 처음 간 구치소가 영등포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볼품없는 시를 썼다. 시인이 되려 했다. 몽글몽글 생각이 난다.

## 내가 박정희에게 감사하는 까닭



유 대 기\_ 서울대 철학과 77학번. 쌍용양회공업(주) 사원, 거름출판사 대표, 흥익미디어(주) 대표, 전인교육실천연대 대표(원)

1976년 겨울 차가운 새벽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 서울역에 내렸다. 서울대 시험 보러 가는 길. 당시 부산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서울대에 몇명 붙었느냐로 학교의 성적을 매기셨다. 이는 당시 명문고들의 풍속도였고, 나로서도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3년의 성적표를 받는 시험이었다. 공과대학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애초에 문과 적성이던 나는 석 달을 못 채우고 휴학계를 냈다. 재수 공부 1년 후 시험을 다시 쳐서 인문대로 갔다. 철학을 전공하고 싶어 1년을 날린 셈. 철학에 뭔가 인생의 나침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자 넓디넓은 캠퍼스 안 어디에서 강의가 열리는지도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께서 간간히 하시는 말씀에다, 부산대 다니던 작은형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제법 반정부 성향이 형성된 나는 친구의 권유에 선선히 학회에 가입했다. 이렇게 몸담게 된 학회가 사회과학회. 당시 서울대에서는 큰 서클이었다. 이 학회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시로서는 꿈에도 몰랐다.

1977년 봄, 학내 시위가 있었다. 워낙 적은 역량에 경찰의 대응력이 커서 잠시 시작하다가